

# 현금없는 버스 시범 첫날 “큰 불편 없었다”

### 오는 9월까지 도내 218개 전체 노선서 시범운영 외국인관광객 불편 불가피... “QR 결제 가능해요” 모니터링 거쳐 시범기간 연장 또는 전면시행 결정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이어 ‘현금 없는 버스’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1일부터 시범운영이 이뤄졌다. 운행 첫날 대부분의 승객들이 카드로 요금을 납부해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들 다수가 카드보다는 현금을 지불하면서 전면 시행될 경우, 이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영 첫날인 1일 제주 시내 한 일반 간선버스, 제주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일주동로를 따라 서귀포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이 버스는 함덕리, 동북리 등 많은 관광지들을 두루 거치는 탓에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오르내렸다.

이들은 대부분 입구에 마련된 버스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찍으며

순조롭게 탑승했다. 그러나 곧 “잔액이 부족합니다” 소리와 함께 한 관광객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 관광객은 기사에게 “현금 지불도 가능하죠?”라고 묻고는 급히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들었다.

기사는 “3개월 뒤에는 현금 납부가 안 된다”면서 “다음부터는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로 한 30분쯤을 달려 도착한 함덕해수욕장 인근 버스정류장. 이번에는 외국인 관광객 5명이 대거 탑승했다. 이들은 손가락을 활용해 5명이라는 것을 알려더니 한 명이 대표로 손에 쥔 지폐 문치를 그대로 돈통에 넣었다. 기사는 “현금 없는 버스”를 알리려는 듯 입을 열었으나, 중국어가 들리자 이내 입을 굳게 다물고는 버스를 출발시켰다.

그 뒤로도 동북리 등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장소에서 다수의 외국인들이 현금으로 요금을 납부하면서 버스에 올라탔고, 기사는 외국인인 것을 확인하더니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태를 대비하듯 버스 내부에는 한국어와 외국어로 안내 포스터가 붙었고, 버스 내부에 설치된 안내판에서도 노출되고 있었지만, 이를 유심히 살피는 탑승객은 없었다.

도민과 관광객들은 제도 시행에 관측하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만일의 경우에 대해 우려했다.

도민 A씨는 “카드를 늘 챙기고 다니긴 하지만, 깜빡하고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면서 “계좌이체도 가능하니 대형인데 탑승객들이 밀려있고 운행도 지연되는 상황에서 과연 계좌이체를 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핸드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과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외국인들은 카드가 없을 경우 요금납부에 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했다.

도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결제 플랫폼을 분석, 해당 플랫폼에서 QR결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환승·할인 혜택으로 인해 공항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관광객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상대로는 QR결제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이달부터 교통복지카드가 발급될 예정이어서 버스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다만, 급행이나 리무진 버스 등에서는 복지카드 사용이 제한되어 그쪽에서 부득이하게 불편이 생길 수도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며 해결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3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는 ‘현금 없는 버스’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 시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 “도교육청 조직개편 전면 재검토하라”

고의숙 교육의원 어제 성명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을 포함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고 의원은 1일 제주도의회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의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 용역과 입법 예고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의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중차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의원은 “도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의원으로서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 교육가족의 의견수렴에 대한 필요성과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 등 최소한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했다”며 “이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가족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도교육청에 서



류제출 요구서 협조를 의뢰했지만, 교육청은 ‘지방의회의 과도한 집행부 권한 개입’으로 판단해 협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안은 법령에서 보장되는 고유한 입법활동”이라며 “실제로는 의안 심사와 정에서 의견 조치는 빈번히 이뤄지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사전적·적극적 개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대해기자

## 전기오토바이 대여점서 잇따른 화재로 18대 소실

우도의 한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화재가 두차례나 발생해 오토바이 18대가 불에 탔다.

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8시37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의 한 전기오토바이 대여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리튬배터리식 전기 오토바이(2021년식) 17대가 소실됐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분쯤에도 같은 대여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에어컨 1대와 전기 오토바이 1대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재현기자



방울새의 만찬 1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한 농경지에서 방울새 한 마리가 잘 익어가는 해바라기씨를 먹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즉각 중단하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제2

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서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재벌과 부자만 배불리는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부치는 정부의 무도한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제주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도민 의사를 깔아뭉개는 제주 제2공항의 일방적 강행을 막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현기자

## 서귀포시 하천 물놀이 지역 7곳 개장

### 강정천·솜반천·정모시습터 등 안전 요원 42명 배치 해수욕장 4곳도 개장... 연안 해역 등 안전 요원 확대

서귀포시는 여름철 하천 물놀이 지역 7개소가 1일 개장함에 따라 민간 안전 요원 42명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한 하천 물놀이 지역은 강정천, 돈내코, 중문천, 솜반천, 산지물, 속골, 정모시습터다.

서귀포시는 개장을 앞두고 지난 5월 하천 물놀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 인명구조함 정비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민간 안전 요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 구조 요령 등을 교육했다.

하천 물놀이 지역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서귀포시는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 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또한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서귀포시와 동주 민선터 간 비상근무반을 가동하고 이용객이 늘어나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상황 관리 정도를 높인다.

같은 날 서귀포시 관내 중문새달·표선·화순금모래·신양섭지해수욕장도 일제히 개장했다. 개장 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서귀포시는 여름철 해수욕장과 연안 해역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해보다 민간 안전 요원을 확대 배치했다. 전체 배치 인원은 해수욕장 4개소 65명, 연안 해역 8개소(성산내수면, 소금막, 남원포구~태우개, 쇠소깍, 소천지, 논짓물, 사계해변, 대포도리밭) 25명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축

# 취 임



**진 명 기**  
(입도 22세손)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진씨 제주도종친회 종친 일동